

# What's Up, O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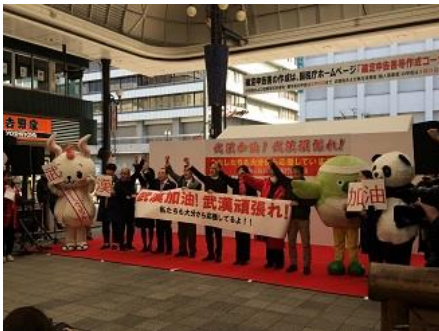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45호> 2020년 2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 <오이타 소식>

### “武漢加油!(우한 힘내라!)”이벤트 개최



<챌리티 이벤트 회장 모습>

지난 2월 2일 오이타시 갤러리아 타케마치 돔 광장에서 오이타 화교 화인회가 우한시를 응원하는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화인회는 매년 이 시기에 ‘춘절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올해는 중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대고 있어 축하 무드를 자제하고 우한을 응원하는 챌리티 이벤트로 대체했습니다.

오이타시는 우한시와 자매 도시로 회장에는 모금함을 설치해두었습니다. 화인회에서는 이번에 모인 모금액으로 마스크 등을 구입해 중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 <히지정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히메시마촌에 이어 이번 호는 히지정으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 <‘바다의 성하마을’ 히지성터 주변>

벧푸만에 인접해있는 히지 시내 중심부는 에도시대부터 이어진 성하마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히지성터에는 성벽이 남아있으며 천수각이 있던 자리에는 히지 초등학교가 세워져 어린이들이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봄에는 성터 주변의 산책로를 따라 활짝 핀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 <‘히지메이드’ 히지 주민이 만드는 상품 리브랜딩>

‘히지메이드’란 히지정의 자연과 스토리를 배경으로 히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만드는 상품을 선정해 리브랜딩하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제 1탄으로 인정받은 히지의 기업이 만든 상품 ‘유칼리 탈취 향균 스프레이’가 전국상공회연합회 주최인 ‘마을 활성화 특산품 콘테스트’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품은 후루사토 납세의 답례품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히지정 정책추진과>

## 오이타 100% 즐기기! COMICO ART MUSEUM YUFUIN



© Yoshitomo Nara 2017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유후인의 유노츠보거리에서 살짝 고개를 돌리면 유후다케를 바라보며 서있는 모던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옛 유후인미술관이 있던 공간에 자리를 잡은 이 건물은 ‘코미코 아트 뮤지엄 유후인’으로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NHN JAPAN이 사회 공헌을 위해 세운 미술관입니다.

검은 외관이 인상적인 ‘코미코 아트 뮤지엄’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쿠마 켄고(隈研吾)가 고즈넉한 유후인 마을 풍경에 어울리도록 자연 소재를 활용해 설계했다고 합니다. 특히 검게 그을린 삼나무로 감싸인 외관은 미술관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한편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코미코 아트 뮤지엄’의 로고는 무인양품의 아트 디렉터로 활약한 하라 켄야(原研哉)의 디자인으로 유명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함께 해 미술관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코미코 아트 뮤지엄’은 사전 예약제이며 1시간에 걸친 도슨트 투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갤러리 I 은 꽃을 모티브로 해서 유명한 일본 현대 아티스트 무라카미 타카시(村上隆)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쯤 본 적 있는 익숙한 그림에 반가운 느낌부터 듭니다. 갤러리 내부에는 작품 설명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입장 시 받은 팸플릿 안에 작품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지만 도슨트의 친절한 해설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인원로 투어를 돌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할 때 시야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인 듯한 특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갤러리 II 는 전 세계를 돌며 활동하고 있는 스기모토 히로시(杉本博司)의 해경(海景)시리즈 5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가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갤러리는 마주보고 있는 독특한 구조로 그 사이에 놓인 통로 천장이 뚫려있어 계절, 날씨, 시간대에 따라 갤러리에서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반대편 갤러리 전체가 한 눈에 들어와 이 역시 하나의 작품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갤러리를 잇는 바깥 정원은 사계절 어느 때에 와도 꽃을 볼 수 있도록 그 계절에 맞는 식물들을 심어놓았다고 합니다. 겨울인 지금은 산다화가 활짝 피어있었고 구석구석 눈에 띄는 작은 꽃들을 보며 미술관 내부는 물론 바깥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느낌을 받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보이는 유리창너머 유후다케의 웅장한 모습이 장관입니다. 바깥에 있는 오픈 갤러리에 작년 12월에 등장한 나라 요시토모(奈良美智)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후다케를 배경으로 능글하게 서 있는 개의 조형물이 마치 오래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마냥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2층 라운지는 ‘COMICO’에서 연재 중인 만화책들이 놓여있어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며 긴 테이블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습니다. 도슨트 투어는 이 곳에서 마무리되며 잠시 작품을 되새기거나 눈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유후다케를 바라보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투어를 끝낼 수 있는 것 또한 좋았습니다.

‘코미코 아트 뮤지엄’은 다른 미술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일지라도 건물과 자연, 그 조화까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고 예술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도슨트 투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넘쳐나는 곳으로 유후인에 오시면 꼭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 <COMICO ART MUSEUM YUFUIN>

- ▶ 입장료 : 성인 1,500엔/ 학생 1,000엔/ 미취학 아동 무료
- ▶ 휴관일 : 격주 월요일
- ▶ 사전예약제 및 투어 형식으로 관람 안내
- ▶ 한국어 투어 : 11:00/15:00
- ▶ 홈페이지 : [camy.oita.jp](http://camy.oita.jp) (온라인 예약 가능)

